

여수엑스포 최악 교통대란 우려

셔틀버스 예산 148억원 누락

버스·철도·항공기 수요 부족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와 철도, 항공기 수요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셔틀버스 운영예산마저 충분하지 않아 내년 박람회에서 사상 최악의 교통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11일 전남도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여수세계박람회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반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셔틀버스 운영등에 들어갈 사업비가 일부만 반영돼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애초 412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204억만 반영된 채 148억원은 누락됐다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원활한 교통대책 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애초 박람회 기간 중 여수를 찾는 관람객이 1047만명에 달하는데, 관람객 중 승용차를 이용한 관람객이 64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환승주차장에서 박람회장간 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신항 일대 박람회장 건설현장 전경. 박람회 주제를 함축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영구 시설인 주제관(지상 2층·연면적 7413㎡)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수십여대의 타워 크레인과 대형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셔틀버스를 운영,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람회 기간(93일) 중 주중에만 약 238대의 셔틀버스가 필요하고 주말에는 520대, 휴가기간이 겹치는 8월 주말의 경우 최대 901대의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게 조직위 판단이다.

조직위가 셔틀버스 임차료 222억 원에 운전기사 배차·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412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올린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264억원의 예산만 반영하는데 그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비 행정기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대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다짐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구성하는 8개 시도의 실무자들은 11일 울산시청에서 협력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중심의 중부경제권에 대응 할 남부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말 개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 축소... 긴축 불가피

광주시는 160억 증가

2012년엔 1659억원으로 지방채 발행한도가 160억원 늘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2011년 5113억원에서 2012년 4837억원으로 276억원이 축소됐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 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한도가 없다시피 했으며 2010년에도 8조9747억원에 달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줄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가 전국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세외 수입이 감소한 자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2011년 1499억원에서

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법에서 지방 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다 행안부가 지침에서 자체를 4개 채무 유형으로 분류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도는 8% 이내, 시·군·구는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2009년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뒤로는 한도초과 발행 요청이 현격히 줄어드는 등 하리띠를 즐라매고 있다"며 "내년에는 한도의 60% 정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지리적표시 농식품 전남 24개 최다

'영광한우' 80호 등록 예정

'보성 녹차', '고창복분자'처럼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 명품 농산물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된 지리적 표시 등록 농식품이 80개 품목에 이른 가운데 전남이 24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

"영광 한우"가 지난 5일 열린 지리적 표시등록 심의분과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했다"면서 "2개월간의 심청 공고 기간을 거쳐 지리적 표시 제80호로 정식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리적 표시 농식품은 지난 2002년 보성녹차가 1호로 등록된 이후 이천쌀, 고려인삼, 고창복분자, 횡성한우 등 유명 농식품이 등록됐다. 또 참여농가도 2002년 35가구에서

올해 9월 현재 11만7461가구로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실류 20건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17건 ▲쌀, 찰쌀보리쌀, 칼육수수 등 곡류 10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경북 20개 품목, 강원 15개 품목, 경남 12개 품목 순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주암댐 물 광주천 공급

광양시의회, 철회 촉구

광양시의회가 11일 주암댐 물의 광주천 공급 반대를 결의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암댐 물 광주천 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섬진강 수계의 주암댐 물을 광주천을 비롯한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 용수로 공급기로 한 것은 가뜩이나 생태환경이 악화돼 가고 있는 섬진강의 생생줄을 빼앗는 행위"라며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국토해양부, 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광주천 및 영산강 수계에 전역 무관한 주암댐 물을 하루 10만m³씩 광주천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되면 섬진강 하류권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염해권역이 상류로 확대되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토부, 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전달하는 한편 3개도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자동차 번호 17일부터

10개중 하나 고른다

2개 중에서 고르게 돼 있는 자동차 번호의 선택 폭이 10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뒷 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연합뉴스

검찰 "이국철 폭로와 진술내용 다르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자신의 회사 구명 청탁을 위해 현직 검사장을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1억원에 대해 검찰조사에서는 "사업자금으로 벌여준 돈"이라고 달리 진술했다고 결찰이 11일 밝혔다.

이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이 밖에서 주장한 바를 조사한 내용에 대해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내용이 부풀려지고 의혹만 커져 해명차원에서라도 말을 해야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부

터 검찰사장에 밝다는 사업가 김모씨를 소개받았고, 김씨에게 SLS조선 급여통장에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를 건네줬다. 김씨가 현직 검사장급 인사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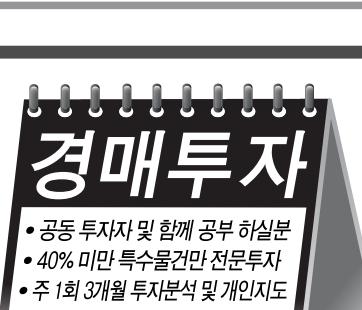
이와 관련, 검찰은 이 회장이 주장한 1억원의 용처 추적에 나서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의 일본출장 중 향을 제공주장과 관련해 이 회장이 수사팀에 제출했다는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 간부 권모씨의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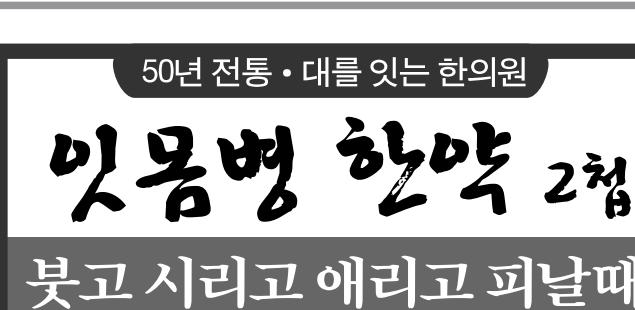
/연합뉴스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9000@hanmail.net



|주|



복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 이 齒 ~ 치 료 치 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의정부 제110725-증-9092호

공무원 특별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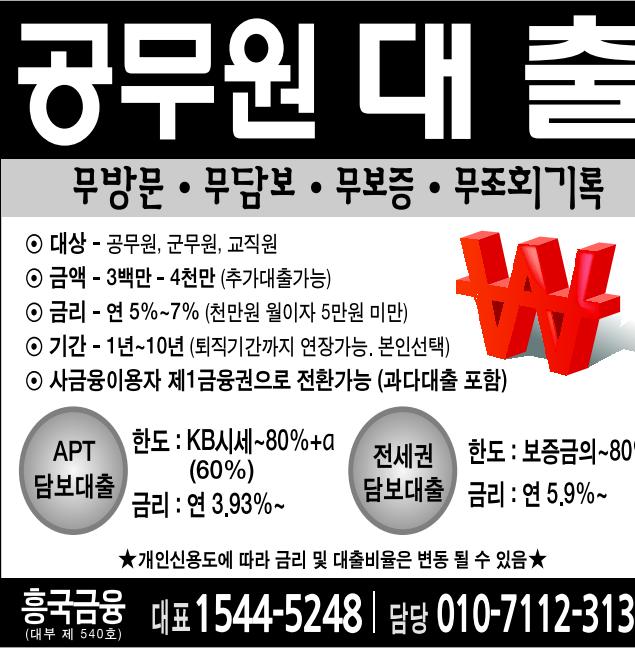
무조회 기록식서비스 · 개인설정변경권 청탁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 미만)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기거래비용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 (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542호)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APT 담보대출

한도 : KBA시세~80%+0 (60%)

금리 : 연 3.93%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11 새광진도군 향우회 체육대회

○ 일 시 : 2011년 10월 15일 10:00~17:00

○ 장 소 : OB 맥주 광주공장(북구 양산동)

○ 대 상 : 500명(내빈, 향우회원 등)

○ 행사내용

• 의식행사

- 제1부행사 : 개회식

• 식후행사

- 제2부행사 : 체육행사(축구, 배구)

-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 폐회

○ 추진위원

제광진도군 향우회장 한기민 010-9458-1896

수석 부회장 한찬균 010-7156-4363

상임 부회장 박성호 010-3601-0989

상임 부회장 김정운 010-9862-4708

진도읍 향우회장 이종원 010-5531-9797

고군면 향우회장 한진옥 011-9667-8041